

電氣界의 이런일 저런일

電氣界의 이런일 저런일을 回顧談式으로 써 보라는 청탁을 받고 보니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大韓電氣協會 創立 當時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쯤 전의 이야기다. 이協會가 創立되기 數年 前부터 電氣人들 사이에 電氣會館 건립 문제가 散發的으로 舉論되어 왔다. 電氣 關係團體들의 共同 集合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던 중 電氣協會 創立 1년전쯤 해서 當時 電氣關係 團體들 중 財政도 좋고 제일 활발히 움직였던 大韓電氣工事協會의 理事長이었던 李嘉永씨와, 專務理事 李京馥씨 등이 主動이 되어 電氣會館 建立推進委員會를 만들어 「電氣會館을 짓는데 찬성한다」는 도장을 電氣關係의 여러 團體·業體와 各界 人士로부터 받았다.

趣旨와 意慾은 좋았으나 막상 具體的 實踐단계로 들어가 보니 어려움이 생겼다. 會館을 지을 垆地 마련, 建築費 문제 등에 부딪혔다. 建立推進委員會만으로서는 法的 근거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當時 韓電 社長으로 계시던 朴英俊씨가 앞으로 나섰다. 氏는 전해에 日本電氣協會가 주최하는 「電氣의 날」 행사(國際에디슨탄생일 기념축하가 主가 되는데 美國과 공동으로 개최한 성대한 행사였다)를 보고 대단히 감명이 깊었던 모양이다. 우리도 그런 會를 만들어 國際的인 紐帶를 맺어보자는 提議를 했다. 여기서 社團法人 大韓電氣協會를 설립하자는 意見이 모아진 것이다.

當時 筆者는 電氣學會 總務理事 일을 맡고 있었다. 그 때 學會 事務所는 서울 小公洞 뒷골목에 있는 利川電機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建物の 2층 방 하나를 빌어 쓰고 있었는데 방 크기가 10평 정도로 會議室 겸용이었고 사무원은 한 사람, 이런 정도였다. 돌아가신 李宗日선생이 會長이었는데 이 분은 관립 東京大를 나오



姜 錫 圭
(天原工業專門大學長)



〈大韓電氣協會 創立總會 光景 (1965年)〉

시고 官廳에 오래 계셨던 분이래, 그래서 그런지 매우 形式主義이시고 매우 근엄하셨다. 5~6명 모이는 常務理事會議에도 開會·閉會·決議가 너무 分明하고 形式化되어 그 때마다 나는 分明한 것은 좋으나 저렇게까지 嚴格하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常任理事會에 어느날 「電氣協會 창립에 관한 건」이 正式議題에 올랐다. 緊張되고 慎重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前서부터 大韓電氣工事協會에서 이 문제가 論議되어 왔으니 거기서 그대로 계속 主管하여 결말을 질 것이지, 왜 學會로 넘어왔는지 지금까지 그 理由는 알 수가 없다. 學會가 主動이 되면 公平하게 進行되리라고 보았는지 모른다.

하여간 電氣協會 創立 준비 사무가 學會로 넘어왔고, 韓電에서 金鍾珠씨와 學會에서 내가 協會 創立 實務를 맡게 되었다. 金鍾珠씨는 韓電 幹部인 동시에 나와 같이 學會의 常任理事이기도 해서 여러가지로 便利했다. 學會에서는 常任理事會와 理事會를 연거푸 열어 이 問題를 討議했다.

電氣人의 集合體로서의 電氣協會의 創立 趣旨—특히 會館을 지어 잘 하면 學會 事務所도

거저 무료로 인을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맘이 솔깃하여—에는 반대가 없었으나, 學會가 직접 會員으로 加入한다는데는 多少 異議가 있었다. 學會의 純粹性이 해쳐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電氣人의 大同단결이 꼭 필요하다는 大義에 놀려 찬성쪽으로 決議가 났다. 기왕 電氣學會가 들어갈 바에야 強電·弱電을 망라하자는 의견이 나와 大韓電子工學會도 같이 加入시키자고 해서 工學會에 提議했더니 흔연히 찬성이다. 그래서 強電·弱電이 다 들어오고 個人,團體,事業體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잡뽕會가 되었다.

수십차례 모임을 갖고 定款 草案을 몇번 뜯어 고치고 任員을 事前조정하고 해서 創立 總會를 열어 通過됐다. 學會에서 創立 事務를 봤기 때문에 草創期에는 教授, 學者들이 任員에 많이 들어갔다. 現在 協會 任員 28명중 2명이 학자인데 비하여 初代 任員은 41명중 7명이나 학자였다.

또 「學會에 限하여 5인 이내의 正會員을 추천할 수 있다」는 學會단의 特別 優待條項도 넣었다. 이 조항은 現在도 살아 있는 줄 안다. 協會 初創期에는 任員會가 자주 열렸다. 韓電 朴英俊社長 잘 나오시고, 작고한 大韓電線의 薛卿



李宗日 副會長



蔣 鄕 東 總務分委
委員長

東社長, 利川電機의 張炳贊社長, 現代建設의 鄭周永씨등 實業界 人士들도 잘 나왔다. 이 實業界 人士들은 會議에 나와도 별 말이 없고, “종도록 하시오” “좋은게 좋지요”하는 식이었다. 대단한 利害關係가 없는데다 韓電 社長の 나오라는 勸誘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는게 아닌가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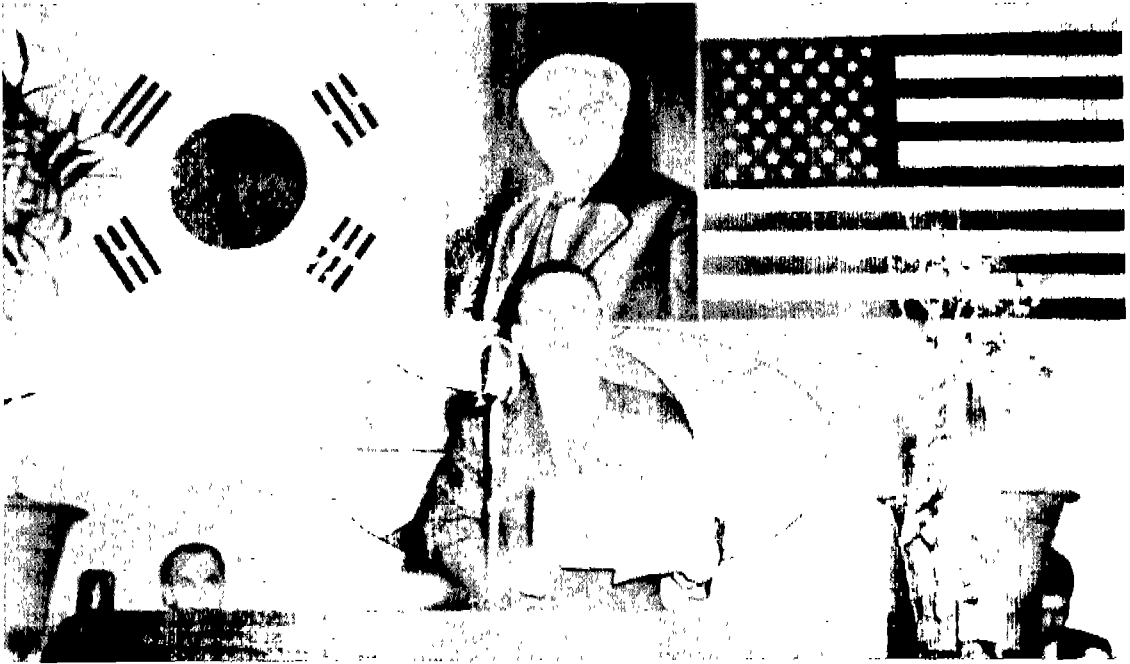
어쨌거나 韓電의 朴英俊社長은 電氣協會 創立에는 정말 絶對的인 存在였다. 韓電 社長으로서 電氣協會 안 만든다고 큰일날 것도 없는데, 참 열심이었다. 電氣協會가 存續하는 限이분의 功勞를 잊어서는 안 될 줄 안다.

現在의 電氣會館은 그 地가 韓電 것이었는데 韓電서 協會용으로 내놓고 建築費도 대부분 韓電서 냈다. 그때의 會館 近處는 지저분하고 閑散하여 지금과는 아주 달랐다. 會館 자리에는 양철지붕의 연탄공장이 들어있었고 會館 남쪽 靑少年會館과 世韓빌딩 자리에는 빈터의 어린이 公園이었다. 公園이라야 施設도 없고 빈약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을 뿐이고 벤치기장수와 동네 어린이 몇 명이 모여 노는 정도였다. 그러나 會館側으로 봐서는 南쪽이 흰히 트인 好條件이 되었고, 北은 淸溪川 道路에 접하여 交通좋고 주위가 그리 混雜하지도 않고 해서 協會 자리로서는 명당자리로 여겼다.

事務室 방을 定하는데 協會側에서 電氣學會의

방을 먼저 고르라 하였다. 事實은 會館을 지을 때 電氣·電子系統의 團體가 모두 여기 들어오기로 하되 非營利團體인 學會나 技術者協會 등에는 無料로 방을 빌려 주기로 했었다. 그 後 실제는 電氣協會 自體의 財政 關係로 그렇게는 못되었지만 방을 먼저 고르라는 것쯤은 可能했다. 그래서 서울工大의 禹亨疇教授와 내가 거의 完工된 會館을 돌아보고, 지금의 學會자리 방으로 意見을 모우고 任員會에 報告하여 그대로 定했다. 그때는 第一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北向이라 햇볕이 안 들고 淸溪川 高架道路의 騒音이 大端하여 다른 방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後悔도 들었다. 學會의 방 賃貸料는 原理 無料로 할 豫定이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半額으로 定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지금의 大韓電氣技師協會의 前身)는 그 半額도 낼 處地가 못 되어 會館 제일 꼭대기층에 제일 구석지고 제일 작은 방을 하나 거저 얻어 들었다. 電氣會館 안에서 會館 主人인 電氣協會를 除外하고는 唯一한 無料 賃貸 使用者가 되었다. 그때는 電氣·電子系統의 어떤 會든지 가난했지만 그 중에서도 電氣主任技術者協會는 더 가난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이 事務室로 定해지자 다음날 尹日重會長님이 당신이 宅에서 쓰시던 책상을 갖다 놓았다. 會長 책상 하나 실 餘裕가 없었기에 그 책상이 커서 事務室 방의 거의 半을 차지했는데 그 책상 앞에 앉으셔서 滿足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主任技術者協會가 電氣會館에 방을 얻기 전에는 明知大 電氣科實驗室, 서울工科學院 등에 看板단 붙여 놓고 變換한 事務員 하나 쓰지 못하였다. 財政이 아주 貧弱해서 任員들이 各者 호주머니 돈을 추렴하는 일도 여러번 있었다. 언젠가 理事會를 하는데 商工部의 崔燾昌 電力課長(現在는 故人이 되었다)이 臨席官으로 臨席했다. 財政 問題가



〔제1회 國際에디슨 탄생일 기념축전 (1966年)에서 축사를 낭독하는 當協會 朴英俊 前會長〕

討議되는데 財政 돌아가는 것이 하루 딱 하나
 까 經費에 보태 쓰라고 一金 2천원을 내 놓는
 것이 아닌가. 民間 團體 모임에 監督官이 臨席
 하면 대개 교통비라도 받는 것이 常例였는데
 거꾸로 돈을 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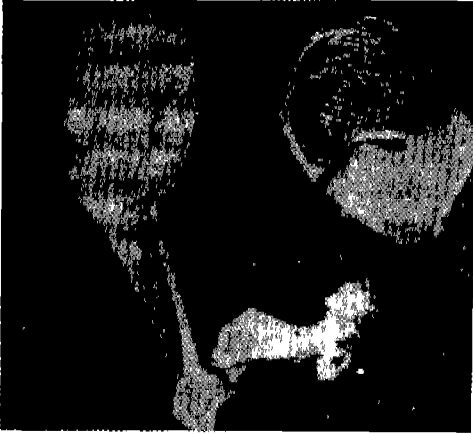
나는 電氣學會에는 總務理事로, 電氣主任技術
 者協會에는 副會長으로 양쪽에 關係하고 있었
 다. 같은 電氣界의 學術·技術 團體인데 電氣
 學會는 任員會가 끝나면 學會豫算으로 設농탕
 한 그릇 정도는 먹을 수 있었지만(대개 그렇게
 했다), 主任技術者協會는 그것도 못하여 임원
 들이 돌아가며 食代를 내곤 했다.

大韓電氣技術者協會는 大韓電氣協會 보다 2
 년 앞서 設立되었다. 電氣主任技術者였던 安再
 榮、金鍾民, 金善慶, 金正奧, 申昌均, 李熙生
 씨 등이 主動이 되어 商工部의 電力課長 崔燉
 昌씨의 積極的인 後援으로 1963년 12월에 創立
 되었다. 韓電 講堂에서 全國 各 業體의 電氣責

任者 約 四百명이 모여 電氣 保安과 節電에 관
 한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라야 實은 半強制로 出席시켜 商工部와
 韓電의 指示 注意事項의 傳達이었다. 그 때만
 해도 就職이 대단히 어려워 韓電 入社 試驗에
 는 넷십·몇백대-이란 熾烈한 競爭이었다. 大
 學 電氣科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 地方 中學先
 生으로 가는 것만도 多幸으로 여기는 時代였다.
 어느 業體의 電氣 責任者로 就職되었다면 周圍
 에서 알아주고 뽐낼만도 하였다. 그런 책임자
 들이 全國에서 많이 모였다.

이 機會를 創立總會 機會로 利用했다. 세미
 나가 끝남과 同時에 바로 그 場所에서 그대로
 創立總會 開催 宣言을 하고 一瀉千里로 모든것
 을 通過시켜 버렸다. 臨時 議長은 安再榮씨였
 는데 司會가 초스피드 대걸작이었다. 創立總會
 를 할데니 모이라곤 해서는 모일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벼락치기로 한 것이다.



← 1971年 4月 第1回「電氣의 날」기념식에서 大統領 個人賞을 수상하는 尹日重先生. 右側은 李洛善 商工部長官

尹日重씨가 생각한다. 이제 나이 90세 오래 사신다. 長壽의 秘訣이 무엇일까. 不快한 일이 생기면 瞬間 으레 이맛살을 찌푸리고 못마땅하다는 意味로 “에이” 한마디 하고는 그만이다. 잠자리에 들면 언제나 5분 以內에 잠이 든다는 것이다. 不必要한 것은 곧 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精神健康에 좋은 것인가. 「君子之道는 淡淡」이란 古語가 있다. 感情의 急變을 누르고 늘 淡淡한 心情으로 冥속 和平을 누린다는 말이다. 그 분은 喜怒哀樂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冥속 和平이 이뤄지기 때문이리라. 또 늙게까지 意慾이 대단하셨다. 「來日 地球의 終末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련다」는 積極的인 精神姿勢와 冥속 和平의 이 두 가지가 그분의 長壽 條件이 아닌가 싶다. 知識人일수록 精神健康이 肉體健康을 支配한다고 보면 「健全한 精神은 健康한 身體에 깃든다」가 아니라 「健康한 身體는 健全한 精神에 깃든다」다.

宿願의 電氣會館이 서고 學會·協會들이 모여드니까 電氣人들의 氣象이 높아져 여러가지 建設的 意見이 나왔다. 그중의 하나가 「先輩를 위하자, 그래야 우리도 後輩한테 위함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尹日重씨 80세 記念을 해드리자는 말이 나왔다. 募金을 하여 110만 원이 되었다. 結局 家族들의 강청으로 一時 支出되고 말았지만 그 精神은 이어져 왔다. 禹亨疇教授님이 熱心히 主張하여 만들어진 「電友클럽」도 이런데서 緣由되었으리라 믿어진다. 日本人과 韓國人은 1대1이면 韓國人이 이기지만 2대2가 되면 日本人이 이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團結해야 한다. 「電友클럽」이 잘 되는 風土에서 「電氣人의 團結」도 잘되리라 본다.

〔筆者略歷〕

1913. 12. 7生

略歷：서울工大電氣科卒

忠南大, 明知大교수

大韓電氣學會 理事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副會長

大韓電氣技師協會 理事

서울 大成高等學校長

現 天原工業專門大學長

連絡處：學校 天安 (2)8811~3, 自宅 (59)5420

